

신사년(2001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이 2월 26일 해인 조계 덕송 고불 영축 태고총림 등 6대 총림과 전국 90개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신사년 동안 거에는 90개 선원에서 2천 1백여 수행납자들이 참

신사년 동안거 해제 법어

여했다. 조계종 5대 총림 방장스님과 태고종 태고 총림 중앙선원장 스님은 해제 법요식에서 납자들에게 "결제·해제를 구분치 말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라"는 법어를 내렸다.

“큰 자라 몸돌리니 바다가 비좁아”

법전 스님 (해인총림 방장)

九旬禁足(구순금족)은 網禽宿巢(망금숙소)요 三月安居(삼월안거)는 驅狐守塚(구호수총)이라. 90일 동안 꼼짝않으니 그를 속 동지의 잠든 새요, 석달동안의 안거는 무덤을 지키 여우로다. (중략) 一年三百六十日(일년삼백육십일)에

日日安居(일일안거)하고 時時自恣(시시자자)하니 圓者自圓(원자자원)하고 方者自方(방자지방)하며 長者自長(장자자장)하고 短者自短(단자자단)이로다. 일년 365일을 날마다 안거하고 수시로 자자를 하니, 둥근 것은 둥글고 네모난 것은 네모나며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구나. (중략) 大鵬展翅天路遙(대봉전시천로요)하고, 巨龍轉身海水窄(거룡전신해수작)이로다. 대룡이 나래를 펴니 하늘이 아득하고 큰 자라가 몸을 돌리니 바다가 비좁도다.

“높이 부는 바람 산위 불도다”

서옹 스님 (고불총림 방장)

雙收雙放若爲宗(쌍수쌍방약위종) 騎虎由來要絕功(기호유래요절공) 笑罷不知何處去(소파부지하처거) 只應千古動悲風(지응천구동비풍)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놓아주기도 하니 어떻게 종이 되려고? 호랑이를 타는 것은 원래로 뛰어난 공을 요함이로다. 웃어버린 뒤에는 어느 곳에 가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다투 마땅히 천고에 비풍을 움직임이로다.

參禪絕能所(삼선절능소) 獨行無伴侶(독행무반려) 古月照林端(고월조림단) 高風吹嶺外(고풍취령외) 참선은 능소가 끊어짐이라. 홀로 행하여 짝이되는 동무가 없도다. 옛 달은 숲의 꽃을 비춤이라. 높이 부는 바람은 산위를 불도다. 아-아-

“여울물선 달모습 볼수 없어”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휴거헐거(휴거하거)하고 막반막연(막반막연)하라. 쉬고 또 쉬어라 모든 반연도 조금도 생각에 두지마라 좋은 반연 나쁜 반연도 맑은 거울에 티라. 우리가 다들 이렇게 모인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사대 생사사대 말하지만 쉬어야만 합니다.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뽀뽀 흘러가는 여울물에는 달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법어 원문은 buddhanews.com 참조

“봄 광명에 온갖 꽃 만발했네”

원담 스님 (덕송총림 방장)

경에 이르기를 “心不在內(심부재내)하며 不在外(부재외)하며 不在中間及內(부재중간내)라.” 마음은 안에 있지 않으며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과 안팎에 있지 않는다 하니 말해보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萬像之中獨露身(만상지중독로신)

巍巍堂堂雲上中(의의당당운상중) 明潔若百玉之色(명결약백옥지색) 芳香如雪中之梅(방향여설중지매)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드러냄이여, 우뚝 솟아 당당하여 구름 위에 있네. 밝고 조출함은白玉의 빛과 같고, 향기는 눈속의 매화와 같네. 心月(심월)이 홀로 둥그니 광채가 萬像(만상)을 머금도다. (중략) 默坐一念無一塵(묵좌일념무일진) 月照鐵門開飛藏(월조철문개비장) 德崇山下無二路(덕숭산하무이로) 春來春光萬花發(춘래春光萬花發) 고요히 앉아 한 생각 한 티끌도 없음에, 달빛 아래 무서 철문 빛장을 여네. 덕숭산 아래 한 길에, 봄 광명(광명)에 온갖 꽃이 만발했네.

“해제를 반납하고 용맹정진할 뿐”

월하 스님 (영축총림 방장)

(중략) 當一不二(당일불일) 當二不二(당이불이) 既非定慧(기비정혜) 約何定慧(약하정혜) 若問向我(야문향아) 何者定慧(하정혜) 二三六(이삼사육) 九九八二(구구팔이)

일을 일이라 아니하고 둘을 둘이라 않는다면, 이미 정도 해도 아니니 무엇을 일러 정해라 하리오. 만약 나에게 물기를 무엇이 정해인가 한다면 이삼은 육이요 구구는 팔십이다 둘인가 하나인가는 스스로 체득을 하고 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하나인가 둘인가를 논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일뿐이다. 오늘 해제일이라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해제라 할 수 없는 것이니 해제를 반납하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날까지 용맹정진 할 뿐 다른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견성하면 한 티끌도 안보여”

지허 스님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座也善兮行也善(좌야선야행야선) 寒時向火困時眠(한시향화곤시면) 家山有路無人應(가산유로무인전) 月落松窓半夜天(월낙송창반야천) 앉아도 참선 다녀도 참선이니, 추우면 불피고 곤하면 자연

고향산천 가는 길 해줄 사람조차 없으니, 달은 소나무 비치는 창문에 지는데 하늘은 한 밤중이네. (중략) 獨坐獨行向巖巖(독좌독행상외외) 百億化身無數量(백억화신무수량) 縱今遍滿虛空(종금범색만허공) 看時不見微塵相(간시불견미진상) 혼자 앉고 혼자 가는 것이 외롭고 또 외롭더라도, 백억화신 부처가 수없이 있어 설혹 가득한 허공이 꼭 막혀도, 견성하고 나면 한 티끌도 보이지 않네.

“사찰환경 걱정않고 정진할수 있게 최선”

법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 성타 스님



철수행 환경과피문제와 비구니 스님들이 폭행당한 사건의 심각함을 많은 불자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전국 2500여 사찰에 참가 권유공문을 보냈다. 1만여 불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정산 범어사, 천성산 내원사, 미륵산 용화사 등의 환경파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불교계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의대회도 이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2월 27일 개최된 조계종 환경위원회회의에서 ‘자연환경과 사찰수행 환경 수호를 위한 법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과 법불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불교사 주지 성타

2500여 사찰서 1만여명 참가 예상 ‘스님 폭행’ 재발 막기 강력 대응

스님(사지)이 선출됐다.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해, 현재 조계종 환경위원장으로 종단 환경대책을 주관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협회 이사장으로 대구 경북지역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월 28일 성타 스님을 만나 5일 열리는 법불교도결의대회 추진상황과 법불교 공동대책위의 향후계획을 들어 보았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중책을 맡게 됐다. “2월 18일 발생한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과 금정산 범어사, 천성산 내원사, 북한산 회룡사 등의 사찰수행 환경 침해사건을 계기로 불자들의 열망이 모여져 사찰환경수호 법불교대책위가 결성됐다.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시기에 법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과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스님들이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법불교도 결의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계속 언론에 오르고 있는 사

지 못해 불거져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폭행을 당했다. 불교계 가르침에 따라 참고 인내해야 하겠지만,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만큼은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대책위의 향후활동은. “일단 법불교공동대책위는 금정산 범어사, 북한산 회룡사, 천성산 내원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될 것이다. 환경위원회와 외부 환경전문가 5-6명이 참여해 금정산 범어사, 북한산 회룡사, 천성산 내원사의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사찰수행환경 파괴 예방을 위한 환경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모색하고 실천하며, 알리는 작업들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국제사회 추진위원장과 불교계 대표가 참여해 불교권을 보호·대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조계종단에 제안하고, 이웃종단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

남·북한 결식아동돕기 통일음악회

귀의 삼보하옵고,

평불협 창립 10돌을 맞아 2002 한·일월드컵 성공을 기원하고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교계 최초의 통일음악회입니다.

그간 남북불교교류협력의 문을 열고 평화통일을 위해 진력해온 평불협은 97년에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 성불사(成佛寺) 인근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여 매일 7,700명분의 국수를 무상보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음악회의 수입은 북녘 땅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어린이와 동포들에게 국수가 되고 남녘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밥이 됩니다.

민족이 하루 빨리 하나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원의 마당입니다.

귀 불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따뜻한 동포애로 민족의 내일인 남북한 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시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정인익 회장 신법타 협장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장 김도현



통일음악회 진행 프로그램

Table with 2 columns: Part (제 1부, 제 2부) and Program (Song titles and performers like 김병조, 김지현, 김중지 무용단, etc.)

- ※ 일시 : 2002년 3월 17일(일) 오후 7시- 9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 :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주관 :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 후원 : 통일부·대한적십자사·한겨레통일문화재단·민화협·통일연대·종단별 조계종 총무원·진각종·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조계종 포교사단 불교TV·불교방송·불교신문·법보신문·현대불교신문
※ 티켓구입처
• 평불협사무국 (조계사 맞은편) ☎ 02-735-5558 ~ 9 · FAX 735-5564 http://www.bubtanet.or.kr · E-mail : bubta@orgio.net
• 명신당필방(인사동) ☎ 02-732-2800
• 불교TV 영입부(마포) ☎ 02-3270-3366 ~ 7
• 강남 구룡사(양재동) ☎ 02-575-7766
• 여시아문 서점(조계사역) ☎ 02-732-1521
• 조계사 서점(봉향각) ☎ 02-731-2185
※ 티켓금액
• 1층(5석)5만원 · 2층(A석)3만원 · 3층(B석)2만원 · 단체 할인 20%
※ 교환권은 당일 공연 2시간 전부터 매표소 앞에서 티켓으로 바꿔드립니다.
※ 후원계좌안내
예금주 :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한은행 324-01-106447
국민은행 006-01-0804-566